〈이단경계주일〉

■ 1부 오전 9시
■ 2부 오전 11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인도: 전종남 목사

※송　　영 / 찬양대
※영 광 송 / 1장
※성시교독 / 36. 시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288장
대표기도 / (1부) 박영미 집사　　(2부) 윤결태 장로
헌금봉헌 / 51장 (1절)
성경봉독 / **누가복음 5:17~26**
찬　　양 / (2부) 시온 찬양대
말　　씀 / **"믿음을 보시고 일으키시는 주님."**
(The Lord Sees Our Faith and Raises Us Up.) / 전종남 목사
찬　　송 / 287장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노래 / 620장 (1절)
※축　　도 / 전종남 목사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 오후 3시 30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100:2)

인도: 전종남 목사

찬　　송 / 212장, 213장　　기　　도 / 남정옥 권사
성경봉독 / **레위기 23:9~14**　　찬　　양 / 호산나 찬양대
말　　씀 /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 전종남 목사
(Let Us Offer Our Firstfruits to God.)

■ 저녁 7시 30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합2:20)

인도: 권유진 목사

찬　　송 / 382장, 543장
성경봉독 / **시편 3:1~8**
말　　씀 /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 권유진 목사
(Salvation belongs to God.)

■ 주일~금 새벽 5시
에스겔 강해 / 권유진 목사

■ 저녁 8시 40분
인도 / 심상현 목사

다음 주간 기도

주일 1부	주일 2부	주일 오후
윤진태 안수집사	이상혁 장로	노순결 집사

예배 위원

9월	1부	2부
안내	김신영	최영종 이영희 유경순
헌금	박영미	이대기 박선진 우말순 김정순

헌금자 명단

(온라인 헌금 **농협301-0134-5884-21** 강서제일교회)

십 일 조	김복례 김상영(박용분) 김성태(김득복) 김은립 김춘예 남정옥 라제팔(전복희) 심주원 오진솔 유경순 유남순 윤성태(강현주) 윤주연 윤진태(이기숙) 이옥미 최진오(김숙자) 홍종덕
감사헌금	전종남(최경애) 김복례 김상영(박용분) 김성태(김득복) 김순천(연윤희) 김효열(김도형) 남정옥 라제팔(전복희) 문상필-3건 서인순 심상현 유경순 유남순 윤성태(강현주) 윤진태(이기숙) 이상혁(송미숙) 이옥미 전준형(전소원) 정규식(이석란) 조찬양 최진오(김숙자) 한희숙 홍우표(윤명란) 홍종덕 ***자녀소원:** 김성학(류윤영) 김형문(신승희)
선교헌금	김복례 박용분 유경순
구제헌금	남정옥 ***부서헌금:** 유초-중고
교육헌금	김복례 김상영(박용분) 김순천(연윤희) 박광연 유경순 이옥미 홍종덕

지난주일 오전예배 설교요약 (8.30.)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눅5:12~16)

전 종 남 목사

사람은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가족과 이웃에게 외면당할 때 더 큰 아픔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온몸에 병이 퍼졌을 뿐 아니라 가족과 마을을 떠나야 했고, 예배의 자리에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피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주님은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간구할 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12절).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자 그 앞에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도 자기 뜻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우리에게도 질병과 상처, 가정과 자녀의 문제, 반복되는 죄와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문제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 간구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 해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2.주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13절).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고 여기며 가까이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길에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 주십니다. 우리가 죄와 상처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며,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3.은혜를 받은 후에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14-16절).

예수님께서는 깨끗함을 받은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은 것을 입증하고, 정상으로 회복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바쁜 상황에서도,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응답받은 후에, 더욱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고, 긍휼의 손길로 깨끗함을 받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회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